

MB 러브콜, 설레이는 경제계

(이명박 당선자)

“기업투자환경 개선... 할말은 하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면서 경제단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당선자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저마다 '세계 대표'임을 자임하면서 자신들이 당선자와 우선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경제단체간 대결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이 당선자와의 만남에 대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건의사항들을 정리하는 한편 만남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 지에 관해 여러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당선자와 경제단체들의 만남은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처럼 대한상의와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의 공동회동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상의·전경련 등 재계대표 '첫 만남' 준비 분주 규제 완화·경기부양책 등 정책 과제 선별도

들 단체의 성격이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른 점과 '실무'를 중시하는 이 당선자의 성격상 개별적인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의 기업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재계의 대표성이 있는 만큼 당선자와 가장 먼저 회동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도 전경련은 찾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취임 직전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했던 대한상의의 주 최 강연과 유사한 형식의 모임, 전국 상의 회 장단과의 간담회 등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당선자 또는 인수위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건의서를 준비 중이다.

반면 전경련은 실제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대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당선자가 전경련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전경련 역시 초청강연이나 회장단과의 회동 등을 가정해 준비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 당선자가 외국인투자 유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경련과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서울재판클럽(SJC) 등 주한외국기업 단체 회장들을 동시에 만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0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새 정부가 건의할 정책과제들을 선별하고 있으며 현재 이 작업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미래한국비전' 보고서에 제시된 과제들 가운데 실천 가능하고 시급한 방안들을 압축해 당선자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당선자가 무역 7천억 달러 수출시장을 보내준 것에 고맙게 있다. 무역협회는 아직 당선자측과 만나거나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가 구성되면 무역이 경제분야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인수위측으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선거 기간에 각 후보들에게 건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5-10년간의 국가 무역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침체 건설업 숨통 트일까

후당선자 '대운하' 공약 내놔 투자 확대 기대

대선 이후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과거 현대건설에 입사해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데다 '한반도 대운하' 등 건설 친화적 공약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은 24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신정부의 정치성을 떠나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몇 년 간 건설투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증권사 주이환·김효진 연구원은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권에 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이차 부달과 해외직접투자 급증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결국 올해에 비해 내년 성장률 확대가 유력한 부문은 건설투자가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은 대중국 수출 모멘텀이 예전만 못할 수 있고, 결국 내수 확충을

을 강요받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불안과 과잉 유통성 문제가 잠재돼 있어 미국처럼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수 확충을 위해 기댈 곳은 건설투자 밖에 없으며, 이는 차기정부의 정치성과 무관한 어느 정도 필연의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정부는 우선 참여정부가 기획한 각종 프로젝트별 개발계획을 서두르는 것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참여정부가 주로 신도시 건설에 중점을 뒀다면 차기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예상이다. /연합뉴스

코스피 1900선 회복 '산타 랠리'

강세장 연초까지 이어질 것 보유하고 새해맞이하면 유리

24일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회복하는 등 최근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등 연말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증시는 오는 28일 폐장한 뒤 새해 1월2일 개장하는 등 5일 간의 비교적 긴 휴장기간을 갖게 됨에 따라 새해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팔고 연초 장을 대응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증권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부터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함께 펼쳐지고 있는 단기 랠리가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채 새해를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오전 11시15분 현재 전날보다 35.91포인트(1.91%) 오른 1,914.23을 기록중이다.

▲"글로벌 시장 안정+새 정부 기대감으로 연초 강세 가능"=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증시가 신용경색 위기를

와 금리인상 등 악재를 이겨내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런 흐름이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급하게 보유주식을 팔기보다는 연초 강세장의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1월 중순 2007년 4·4분기 실적치가 가시화되면서 약화한 성격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초 1월 효과 없다"=주식 팔고 가라"=일각에서는 내년에는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적전망도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른바 '1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NH증권 이성석 투자전략팀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와 이익모멘텀 등 이른바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올해 4·4분기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기업들의 이익 기대치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데다 경기도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여 시장이 약세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담뱃값 100원 오르면

담배 0.41%P 덜 핀다

모든 담배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100원 오를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흡연율은 0.41%포인트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은 타르 함유량이 높은 제품보다는 낮은 제품을, 담배길이가 짧은 레귤러형보다는 슬림형, 멘솔 향 제품보다는 일반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민회철 전문연구원은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2005년 담배제품의 연간 판매량, 가격, 타르 함유량, 맛 등 특성에 대한 변수를 활용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분석에 따르면 모든 담배제품의 가격이 동시에 100원 올라 가면 흡연율은 0.4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연구원은 다만 "가격적응 단계별로 소비자의 효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될 경우 흡연율이 2%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담배 1갑당 세금 및 부담을 500원 정도 인상했으며 이후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판매 중인 주요 담배제품(2005년 기준)을 대상으로 다른 담배제품의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제품의 가격만 100원 인상될 경우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추적한 결과 '삼플'의 시장점유율이 0.50%포인트 감소해 점유율 변화가 가장 컸다.

이어 '단힐'(-0.21%포인트), '디스 플러스'(-0.06%포인트), '디스'(-0.04%포인트), '단힐 1mg'(-0.04%포인트), '라일락'(-0.04%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명동 KTF 오렌지갤러리 매장에서 열린 사람의 마일리지 기부행사에서 조영주 KTF사장과 사장의 봉사단이 고객들에게 멤버십 포인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뒤 사은의 의미로 군밤과 고구마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항공사 승무원 700명 뽑는다

내년 사상 최대 규모

에미리트항공 등 외국항공사가 내년 700여명의 승무원을 채용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미리트항공과 카타르항공, 동방항공, 싱가포르항공, 홍콩항공 등 외국항공사는 올해 450여명의 한국인 남녀 승무원을 뽑는데 이어 내년에는 각 항공사마다 20~50명씩 채용을 늘려 최소 600명에서 최대 700명까지 신규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외국항공사가 한국인 승무원을 대거 채용하는 이유는 한국인 승무원 지방생의 자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최근 항공수요 급증으로 우수한 승무원 인력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승무원 채용에 가장 공격적인

에미리트항공은 올해 100여명을 뽑는데 이어 내년에는 최대 150여명까지 채용할 방침이며, 카타르항공은 올해 80여명에서 내년엔 100여명, 동방항공은 올해 150명에서 내년 180여명, 싱가포르항공과 홍콩항공은 올해 30명에서 내년엔 50여명을 각각 뽑을 계획이다.

핀에어, 걸프항공, 필리핀항공, 베트남항공 등은 올해 각각 10~20여명을 채용했으며 내년에는 채용인력을 이보다 조금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케세이패시픽항공, 드래곤에어, 홍콩항공 그리고 중국항공사들도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활발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내년엔 사상 최대인 1천300여명의 승무원을 뽑기로해 내년에만 한

국인 승무원 수요가 무려 2천여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에미리트항공의 경우 내년 초부터 2~3개월에 한차례씩 한국인 승무원을 뽑는다.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기혼자라도 응시 가능하며 승무원으로 채용되면 두바이 거주와 주택 제공의 혜택을 준다.

케세이패시픽과 드래곤에어, 홍콩항공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면 된다. 중국동방항공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에 교정시력 1.0 이상, 단 30세까지로 약간 까다롭다.

카타르항공은 만 30세 이하에 고졸 이상, 싱가포르항공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핀에어는 고졸 이상, 만 22세 이상이며, 대부분의 외국계 항공사들이 원하는 여자 승무원의 키는 최소 157cm 이상이 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증시 상승률 세계 8위

코스피지수 28.58% ↑

올해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에서 상승률 8위를 기록했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연초 대비 이달 20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8.58% 상승해 조사대상인 43개 국가 44개 증시 중 8위에 올랐으며, 코스닥지수는 15.60% 상승해 16위를 차지했다.

세계 증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랠리'를 펼쳤으며,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는 올 들어 88.51% 오른 중국 증시에 돌아갔다.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47.21%), 인도(38.99%), 브라질(38.77%), 터키(37.66%), 홍콩(35.32%), 이스라엘(29.06%) 등 순이었다.

조사대상국 43개 국가 중 32개 국가의 증시가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스피지수도 10월 31일 사상최고치인 2,064.85를 기록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51개 회원 거래소의 11월 말 현재 시가총액은 62조4천218억달러로 작년 말 대비 20.99% 증가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11월 말 현재 1조3천474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시가총액의 1.84%로 1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주식 펀드 연말 배당 효과 누리려면 늦어도 내일 오후 3시까지 가입해야

주식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2월 결산법인의 연말 배당에 따른 효과를 누리려면 26일 오후 3시까지는 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

24일 자산운용업체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배당 기업의 배당락일이 27일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직전일인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27일 기준'이 반영되도록 펀드에 가입해야만 배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늦어도 26일 오후 3시까지는 배당주와 관련된 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배당주에 투자

하려는 투자자인 경우에 이번 회계연도(12월 결산) 말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24일 자산운용업체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배당 기업의 배당락일이 27일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직전일인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27일 기준'이 반영되도록 펀드에 가입해야만 배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늦어도 26일 오후 3시까지는 배당주와 관련된 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배당주에 투자

최연소 임원 윤송이 SKT 상무

"당분간 쉬고 싶다" 사의

'천재소녀'로 불리며 20대에 SK텔레콤의 상무가 돼 화제를 모았던 윤송이(31)씨가 경영진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주 이뤄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표는 아직 수리가 안됐지만 당분간 쉬고 싶다는 뜻을 경영진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3월 28세의 나이에 SK텔레콤 임원이 된 윤 상무는 1993년 서울과학기술을 2년만에 졸업하고 1996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수석으로 졸업한 데 이어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천재소녀'로 불렸다. SK텔레콤에 입사한 뒤에는 1미리, T인택티브 등 지능형 휴대전화 대거화면 서비스 개발을 맡아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스트(주)	생산설비 관리사원 및 생산간부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955-1532
☎행남자기광주총판	납품 시원 및 영업사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7	062-527-2627
풍기산업(주)광주공장	경리/회계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7년	회사내규	12/28	062-973-6011
웨딩하우스	웨딩플래너/여행상담/웨딩도우미, 주부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8	062-222-2344
참사랑의원	한의원 업무 담당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28	017-623-8275
한빛경찰전문학원	상담, 수강생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12/29	062-262-3553
엘론서치	[금남로]하노텔리콤 고객센터(연 2,000만)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31	02-6012-9540
☎한라메디칼	병원 영업 및 관리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262-3001
한이에스(주)	한이에스(주) 정규직 영업관리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45-2101
☎신영의료루	일반사무직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62-223-2103
제이씨현시스템(주)	컴퓨터 부품, IT 제품 영업관리 담당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10-3205-4229
☎엠씨에스텍	[광주]전산시스템(서버,DBA) 관리 및 운영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2-6332-5813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04	062-601-7213
시트피아	웹디자인/인테리어쇼핑몰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04	010-5059-891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